



3면

"지역 현안 해결 지방자치법 개정 협력"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음 6월 3일) 제25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안전 최우선, 철저한 재해 대비”

### 송하진 도지사, 부안·고창군 위험지역 현장 방문 정비계획 살피고 애로 청취...예찰활동 강화 당부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기상 여건으로 인한 풍수해 등 재해가 우려됨에 따라 22일 부안군과 고창군의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방문해 정비계획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유기상 고창군수 등 군 관계자와 시공회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부안군 곰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도와 부안군과 함께 협력 후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6월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 483억원을 확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저지대 펌프장 설치, 해안유실 방지시설, 급경사지 위험지역 사면정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이 시행된다.

곰소 지역은 해수면 상승시 월류, 파도에 의한 해안유실, 저지대 침수, 비탈면 주택가 낙석피해 등 재해위험이 많은 곳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재해예방 종합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기관에게 지시했다.

송 지사는 또한 "곰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 등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등을 함께 추진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도 발굴해 달라"고 부안군에 당부하며 "알찬 시책은 도정에 반영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신흥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시설물로 2016년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제방보강, 여수로, 복통·사통 정비, 자동수위관측과 경보시스템이 시설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27ha와 비닐하우스 20동에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이 가능해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정보 전달로 하류부 주민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펌프장, 비

탈면 노후 저수지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

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빈틈없는 예찰활동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공공시설 피해는 물론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기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매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재해위험개선지구 26개소 518억원, 우수저류시설 3개소 6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8개소 17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1개소 88억원, 소하천 60개소 840억원을 투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유호상기자



22일 송하진 도지사가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현장방문한 가운데 지난 6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483억원을 확보한 부안 곰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현장에서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정비계획 점검과 재해위험지역에서의 예찰활동 강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 새만금, 활력 넘치는 녹색 수변도시로

### 새만금 개발청, 그린인프라 구축 토대 마련...연구용역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새만금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인프라 기본구상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착수보고회를 열어 그린인프라 공간구상과 실천전략의 핵심원리,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사업 기획구상 및 타당성 분석 등 과업수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염분, 해풍 등 간척

지 환경이 갖는 식재 기반구축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공원·녹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과 핵심사업을 발굴해 재정사업에 반영하는 등 그린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년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새만금기본계획 재정비와 병

행해 새만금의 비전과 목표에 걸맞은 광역녹지축 조성, 거점 녹지공간 확보, 입지적 특성에 맞는 녹지계획 및 세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활력 넘치는 녹색 수변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린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거나 현재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울러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등 새만금의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새만금의 특색을 살린 그린인프라 구축의 전략과 공공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돼지고기도 FTA 피해보전 지원

### 도내 양돈농가 31일까지 신청...개인 최대 3500만원 한도

전북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지급대상에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가공품이 포함됨에 따라 피해를 본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국내 농어업인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축산 분야 지원 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고시되었다.

이중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전부터 돼지를 사육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완료하고 지난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농업경영체가 해당한다.

개인은 최대 3,500만원, 법인은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

다.

FTA 폐업지원제는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등록을 완료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개인은 약 14억원, 법인은 약 20억원 한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폐업 후 5년간 축산업 허가가 말소되고, 재사육이 금지되는 표시판이 설치된다.

한편, 도내 양돈농가가 지원조건이 충족되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내 피해 양돈농가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9월까지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10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호상기자

## ‘그린뉴딜 유망기업 찾아라’

### 2022년까지 100개사 선정 내달 10일까지 접수

정부가 제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그린뉴딜 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22일 녹색기술 인증대상 분야 등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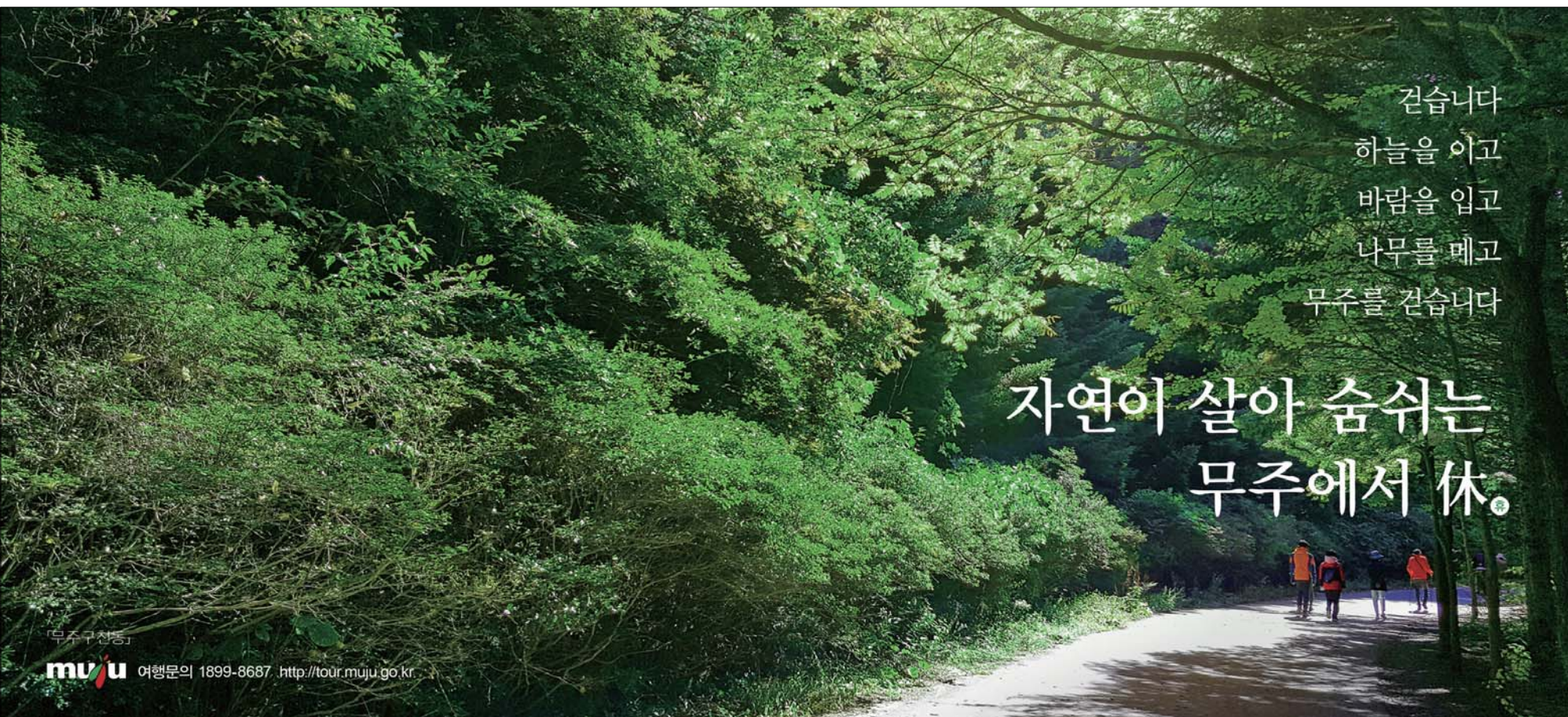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그린뉴딜 프로젝트 등 녹색기술 혁신형 인증대상 분야 등 40개사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녹색인증제 운영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범위 중 소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지원기간은 3년이다.

또한, 그린벤처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하며 기술개발 자금지원(3년·15억원 내외)과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3년·15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8.10(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1367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